죽은 생명 산 생명

(롬5:12~21)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죽은 생명 산 생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법상 틀립니다.
산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 자체에 살아 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첩되어서 어법상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어법상 틀린 표현이 왜 타당한가를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소위 생명을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분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은 생명, 산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제 자신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거의 날마다 한 번씩은 기억을 해 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신드바드의 모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 기억이 안나요, 너무 오래 돼서.
그리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들을 좀 온전하게 되살리려고 요즘 나오는 신드바드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제가 영화에서 본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신드바드의 모험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만화영화 DVD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DVD에 나오는 신드바드의 모험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본 것과.
어쨌든 중요하게 기억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그 신드바드에 대적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마법사입니다.
이 마법사를 물리쳐야 되요, 그래야 공주를 구하게 되는 건지 보물을 얻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악당인 마법사를 물리쳐야 되는데,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창으로 찔러도 죽지를 않습니다, 칼로 베도 죽지 않아요.
이 마법사가 이렇게 칼에 맞고 창에 찔려도 죽지 않는 이유는, 만화이니까 여러분, 심장을 꺼내서 아주 깊은 산속 동굴에 숨겨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는, 머리가 일곱 개 인지 아홉 개인지 열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머리가 여럿 달린 뱀이 그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겨 놓은 심장을 깨뜨리기 전에는 이 마법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죽이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심장을 바짝 어깨 위로 들어가지고 땅에다 내침으로써, 마법사가 죽는 그것이 기억납니다.

참 믿음과 연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생명과 사망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연관성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연관 안에서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이 신드바드의 모험에 나오는 심장을 꺼내서 동굴 속에 숨긴 마법사의 이야기처럼 좋은 비유적 소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방식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 심장을 꺼내어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 심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든, 사업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미모든, 하여간 무엇이든.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마음에 끌릴만한 대상을 다 제쳐놓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나의 마음 심장을 꺼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쁠 것을 기대하고,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심장을 꺼내드립니까?
보이는 자식에게 마음을 꺼내 줄 때와 사업에 꺼내 줄때와는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믿음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준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명제는 틀렸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가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생각의 마음을 꺼내주고 생각을 믿었던 사람일 뿐이지요.

이런 믿음과 연관 지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속성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이 믿음과 연관 하에서 얘기되니까, 믿음의 속성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얘기한 게, 믿음이라는 것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준다는 것은 행위 이전의 일이다.
믿음은 마음 심장을 꺼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 안에 흐르는 피가 대상에 의해서 성분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누구냐? 마음속에 흐르는 피가 뭡니까?
만족의 이유, 기쁨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돈에 마음을 꺼내 주었고 자식에게 꺼내 주었으면, 그 돈에 꺼내준 사람들끼리 자식에게 꺼내준 사람들끼리 이유가 같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꺼내 드렸으면, 마음속에는 기쁨과 만족과 행

복의 이유가 같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꺼내 드린 자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 내가 마음을 꺼내 드린 하나님을 올라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은 편승하여 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김연아라는 자식에게 마음을 꺼내준 김연아의 어머니가, 김연아가 세계 1위의 피겨스케이팅선수가 되면서 그 기쁨을 함께 편승하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박 지성의 아버지가 박 지성 선수의 삶을, 축구선수의 인생을 편승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꺼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꺼내어 갖다 심은 숙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거부반응이 없이 화평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과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숙주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믿음과 연관 하에서 사망과 생명은 무엇일까요?
뭘 사망이라고 그러고, 뭘 생명이라고 할까요?
생명은 날 생(生)자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자에 명령할 때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살아라, 너 살아야 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야 돼!'라고 내 마음 속에 명령을 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 안에서 믿음과 연관 하에서 생각할 때, 내 마음 심장을 꺼내어 준 대상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게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갖다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한테 말합니다.
'너 나를 벌고 싶다면서? 그럼 나를 많이 모으고 벌려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야지, 열심히 투자를 해야지, 열심히 거래처를 찾아 다녀야지'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마음을 꺼내서 이식을 시키게 되면, 그 이식되어진 숙주로부터 내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한 번 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으로 시무하고 계시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학교의 신학교의 교수로 가 계십니다) 그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던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의 초상이 발생했답니다.
두 집 다 가장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내들이 다 젊습니다, 한 집은 아이가 셋이고 한 집은 아이가 둘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두 분 다 직장생활하지 않고 가정만 지키고 있다가, 남편들이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두 집사님이 동시에 과부가 된 거에요.
친구 목사님이 두 집사님 가정에 대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이가 둘 있는 이 과부 집사님 댁은 부유합니다.
아이가 셋 있는 과부 집사님 댁은 가난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심방 가서, '아이를 봐서라도 열심히 사셔야죠, 힘을 내셔야죠' 하는 이 위로의 말이 여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소용이 없더랍니다.
근데 여유가 없어 가난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심각한, 세 아이의 어머니인 과부 집사님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남편 먼저 보내고, 잘못하면 자식까지 다 죽게 될 판이니까 일어나서 떨치고 사는데, 그 남편 죽었으므로 생기는 우울함을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 자식 셋이 과부 집사님에게 생명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지금 나가서 자식 셋이 먹을 돈을 벌어야 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나에게 삶의 활동을 명령하는 대상,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셋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육체적으로 심장이 있고 폐가 있어서 박동하고 호흡하지만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숨이지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의 어머니 부유한 집사님은, 너~무 너무 오랫동안 남편이 먼저 가게 되어서 주어지는 그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엊그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아저씨와 마주쳤어요.
씩씩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칠 강릉이 전국에서 제일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가지고 시커먼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하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보기가 좋아서, '이 더위에 너무 씩씩하니까 제가 다 힘이 솟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열심히 사시는군요!'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집에 아내가 있고 새끼들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요, 우리 가정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씩~ 웃어요.
택배 아저씨가 그 더위에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가정입니다.
그럼 택배 아저씨에게 생명은 가정입니다.
택배 아저씨에게 '너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뛰어야 돼!' 라고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택배 아저씨에게 생명입니다.
사업가가 어려움을 뚫고, 힘들고 남보다 먼저 일어나고, 모든 직원들보다 먼저 가서 정리를 해 두고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왜 그래요? 사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활동하고 살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활동하고 움직여야 될 이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죽은 생명이 사도 바울 말씀하시는 사망이고, 산 생명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생명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심판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전에, 이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사망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으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 있음을 명령하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들이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망이고 생명이다.
뭘 말하는 걸까요?
위에서 예를 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예의 주인공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 세 명의 아이들을 떠맡게 된 과부 집사님, 아이들 셋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명인데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부 집사님은 아이들 셋 때문에 사셨다면 사망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택배 아저씨, 너무 열심히 사는 씩씩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택배 아저씨가 가정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가정이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택배 아저씨는 사망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업가 되시는 아빠가, 사업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업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는 사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왜 움직이고 계십니까? 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활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다~ 죽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나에게 살아있을 힘을 제공하는 힘이고 나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특별히 사람의 경우 주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다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 쉽게 말해서 아이 셋을 둔 과부 집사님이 지금도 살아 있는 이유는, 아이 셋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따라 그 엄마가 죽었다고 해도 아이 셋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아이 셋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과부 집사님이 아이 셋을 앞에 두고도 살아 있는 이유는, 아이 셋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는, 아이 셋에서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택배 아저씨가 더위에도 움직이면서 물건을 날라다 주시는 이유가 가정 때문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배 아저씨의 목숨이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신 이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해 가는 동안에, 아이 셋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택배 아저씨가 하나님 때문에 택배를 하는 동안에 가정이 지탱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인류 때문에 활동하신 게 아니고, 택배 아저씨가 가정 때문에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부 집사님이 아이 셋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죽은 생명이고, 사망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건강과 미모와 인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며 활동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망의 그늘로부터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사망이 보편적이 됐어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이 보편적인 실제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 할 때에 아담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생명의 역사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일어납니다.

어떡하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안에 아담 안에 내가 이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안에 내가 있어서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일 분을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십 년을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상태, 하나님만이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내가 오늘 자식을 키워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자식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직장 때문에 직장을 가고, 가정 때문에 직장을 가고 월급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고, 이 생명으로 옮겨진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는데 그 안에 장차 태어날 내가 들어 있었으므로, 그 죄의 결과가 내게 미쳤듯이 똑같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이 됨으로써 죽은 생명 즉, 사망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심겨지므로, 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